

북미로 밀려오는 유로파렛트(EuroPallet) 타규격으로 유럽에 제품 해상운송시 높은 처리비 야기해

한 신규파렛트가 캐나다로 조용히 밀려들어와 북미 파렛트산업계로부터 쓰레기를 떨쳐 버리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유로파렛트'라고 적절히 불리어지고 있으며 유럽으로 해상운송을 하거나 직접 해상운송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에 익숙해져 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유로파렛트는 유럽내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규격이기 때문이다.

유럽관련당국은 (파렛트)제조업자 또는 상점에 비(非)유로파렛트(a non-EuroPallet)를 폐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타 규격으로 제품을 해상운송할 때에는 곧 바로 공급자에게 돌아가는 높은 처리비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다. 유로파렛트는 북미의 표준 남양재사용 받침목형 파렛트(the standard North American hardwood stringer-style pallet)와는 규격과 소재가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디자인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외양을 띄고 있다.

유로파렛트는 가마건조된 북양재로 제작되고 아홉개의 토막받침형 1200×800 또는 1200×1000 파렛트이다. 두 개의 규격들이 허용될 수 있으나 보다 작은 형(1200×800)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태이다. 유로파렛트들은 보통 약 27kg의 무게를 지니며 캐나다의 표준파렛트와 거의 똑같은 약 18\$의 제작비용이 든다.

유로 철도시스템(European rail system)은 유로파렛트를 위한 시방서(specifications)를 입안했으며, 그 결과 유럽 전역에 걸쳐서 표준파렛트를 시행(보급)하는데 성공하였다.

유로파렛트는 포장물을 규제하는 「환경 재사용·재활용 법률」에 보다 수월하게 적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영·불 해저터널의 개통과 함께 영국은 유로철도시스템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유로파렛트를 표준으로 또한 채택하였다.

유로파렛트는 조그만 소동을 불러 일으켜 왔다. 어떤 캐나다의 풀회사도 그들자신들 소유의 유럽 규격 파렛트를 취급하고 있지 않으며, Chep Equipment Pooling System(파렛트, 용기 상자와 랙들을 pool하는 국제적인 회사)같은 다른 회사들은 풀 시스템내로 유로파렛트를 통합·조정시키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Chep은 현재 산업계를 통해서 적당량의 유로파렛트를 Chep의 유럽수출업자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관심은 북미의 우리 고객들께 유럽행선적화물용 파렛트를 공급할 수 있는냐에 있습니다만 아직 북미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온타리오 미시쇼가에 소재하고 있는 Chep의 영업담당이사 마이크 고티에(Mike Gautier)는 말한다.

“지금 즉시 가능한 대안은 어떤 제조업자로 하여금 유럽표준에 적합한 파렛트를 제작시켜 그것으로 해상운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1회용 표준사양인데 고객에게는 상당히 비싼 비용이 들게합니다. 우리는 유럽내에서 풀(pooling)하기에 적합한 파렛트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최근의 규정은 (유럽 외부에서 제작된)유로파렛트가 유럽시방서에 적합한 한, 유럽외부에서도 제작이 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유럽철도시스템은 유럽파렛트협회(EPAL)에 파렛트제조면허권을 주어왔다. 오스트리아소재 EPAL의 엄밀한 감독하에 유로파렛트위원회(EuroPallet Council)는 유로파렛트를 미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한 공식적인 면허권과 감독권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성되었다.

“유로파렛트는 산업계에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유로파렛트가 국제적으로 최초의 공식적인 단위(unit)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온타리오 퍼커링 소재 캐나다목재파렛트·컨테이너협회의 관리부장인 Gordon Hughes는 말하고 있다.

“우리는 유로파렛트를 여기서 제작할 수 있지만 그들의 로고(logo)가 부착된 파렛트제작계획에 지

금 막 착수했을 뿐입니다.”

유로파렛트가 정식으로 면허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세가지 허용된 로고중 한 개가 표기되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사양은 EUR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동그란 원형의 형태이다. 다른 두가지 사양은 EPAL 또는 BRE라는 이니셜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회사들은 보다 작은 규격의 유로파렛트로 제재된 면허없는 파렛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파렛트위에 제작 일·시를 명시한 유로파렛트를 제작할 많은 제작사들이 그곳에 소재하고 있다고 Hughes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파렛트가 진품임을 입증하여 비록 그 파렛트가 위에서 명시한 정식 로고들 중의 하나를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파렛트가 유로파렛트 표준사양으로 제작된 것임을 고객들에게 주지시키게 되는 것이다.

목재파렛트, 三面型(tri-wall boxes)상자와 합판제상자제작사인 온타리오 브랜포드 소재의 목재 포장회사 대표 Bill Blaney는 그가 하는 사업부문의 단지 약 3%만이 유럽규격파렛트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나는 유로파렛트가 성공을 거두리라고 생각을 하나,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Blaney는 이른 시일내에 면허를 받을 계획이 없다. 아직 그에게 있어서 면허를 받는다는것이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파렛트위원회(CPC : Canadian Pallet Council)-파렛트사용자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는 유로파렛트로 인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금 유로파렛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다수의 해상운송화물을 미국으로 보내왔습니다.”고 온타리오 코보르크에 소재한 CPC 전무이사 Belinda Junkin은 말한다.

파렛트를 제작하는 캐나다목재파렛트·컨테이너협회 회원사들은 그 흐름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고 Hughes는 말한다. “우리 회원사들은 파렛트산업이 나아가는 길로 갈 것이며 주문받은 대로 제작할 것입니다.”

비록 유럽이 보다 더 북미 파렛트를 손상시키지 않고서는 취급할 수 없다고 더라도, 북미는 쉽게 유로파렛트를 취급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세계국가들도 그와 똑같은 것을 발견해 가고 있는 중이다. 터키, 러시아, 그리고 이집트는 유로파렛트로 표준화를 추진해 왔다. 그리고 그들 전문가들은 유로파렛트가 전세계표준이 되어 보편적인 수출도구로서 모든 국가들을 연결시키기 까지는 단지 시간상의 문제만이 남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가공 목재파렛트(침엽수)에 긴급 가공처리요건 마련중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유럽연합이 유럽에서 소나무 재선충(nematode)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캐나다,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 대해 긴급조치를 마련 중이다. 여러 차례의 단속들이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에서 보고되고 있다.

1999년에 미국과 15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연합과의 연간 무역량은 1660억불이었다. 현 규제조치는 침엽수를 사용한 모든 포장재료는 목피(木皮, bark)와 유충구멍(grub holes)이 없어야하고 수분함량이 20%이하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긴급대책안은 다음과 같다.

◎ 조사보고(Monitoring):

모든 유럽연합(EU)회원국가에 위 규제안의 결정을 통보하는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현 가공

처리 요건을 준수하는가에 대한 조사보고가 증가할 것이며,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추가적인 긴급가공처리요건이 시행될 것이다.

◎ 가공처리 요건(Treatment Requirements):

2001년 1월 1일 이후, 침엽수로 만들어진 모든 미가공 목재포장재료(파렛트 등)는 다음중 한 가지로 처리되어야 한다.

㉠ 최소 30분동안 56' C로 열처리 또는

㉡ 화학적 가압 침지처리(Chemical Pressure Impregnation, CPI)

이 긴급처리요건은 2001년 11월 15일까지 유효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 긴급처리요건이 소나무재선충의 추가적인 유입을 방지하지 못하거나, 이 규제요건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좀더 강화되거나 또 다른 대안이 강구될 것이다.

이 가공처리요건은 캐나다, 중국, 일본, 미국에서 15개 유럽연합체(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과 영국)로 해상 수송되는 미가공 침엽수 포장재에 적용된다.

열처리 또는 CPI로 제작되는 모든 파렛트들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가공 처리되었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마크(mark)가 요구될 것이다. 표준화된 마킹(mark)처리가 유럽연합에 제안되기 전에 NWPCA(미국 파렛트 컨테이너 협회)에 의해 개발 및 승인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NWPCA는 현재 최상의 접근안을 모색중이다.

NWPCA는 American Forest & Paper Association, National Hardwood Lumber Association, Southern Pine Inspection Bureau, U.S Forest Service, USDA-Foreign Agriculture Service 대표들과 함께 이 발표에 대한 반응을 조정하기 위해 만났다. 유럽연합에 이 규제조치를 실행하기 전 홍보를 위한 30일 유예기간이 요구되었다. 유럽연합은 2000년 8월 28일까지 문서로 의견들을 수렴하게 될 것이다.

3개의 파렛트규격이 국제표준규격으로 표준화될 듯
-중국도 장래에 T-11형 국가에 포함-
(유럽: 1200mm×800mm, 북남미: 1200mm×1000mm, 아시아: 1100mm×1100mm)

APP(ASIA PALLET POOL, 아시아 파렛트 풀)의 동정이 최근 캐나다파렛트 컨테이너협회(CWPCA)의 협회지 6월호에 소개되었다.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Dr. Marshall White(미국 버지니아공과대학 파렛트연구소장)는 8월 17-19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제 33차 AGM(연차총회)에 참석해 한가지 중요한 개발계획에 관하여 토의할 것이다. 현재 세계는 대중매체의 전달속도가 증가하는 것만큼이나 빨리 좁혀지고 있는 중이다. 미래에 항공운송업자들은 오늘날의 느리면서도 해상에 의존하는 수송체계를 대체해 나갈 것이다. 초기에 포장은 대부분의 제품에 있어 세 개의 파렛트 규격 위에서 행해질 것이다.

유럽, 북남미 국가들은 1200mm×1000mm규격 파렛트를 사용할 것이다. 유럽은 또한 800mm×1200mm규격파렛트를 사용할 것이며,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1100mm×1100mm 규격 파렛트를 사용할 것이다. 미국은 정부가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공동으로 요구하므로 파렛트포장에 있어서 미터법체계를 따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유럽파렛트시스템을 수정, 확산시킴으로써 진정한 국제파렛트시스템(IPAL)으로 유럽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아시아파렛트폴(APP)은 대만, 일본과 한국사이에서 운용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의 서부에 소재한 몇 개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APP시스템은 T-11형 즉, 1100mm×1100mm파렛트규격을 운용하는데 있어 가까운 장래에 중국을 포함할 것이다.

(CWPCA, 캐나다 목재파렛트·컨테이너협회)

미가공 목재파렛트, 국제표준제정작업 진행중

- NWPCA(미국 파렛트·컨테이너협회)보도 -

외국산 해충의 운송경로를 제공하는 미가공 목재파렛트 등에 의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세 기구에 의하여 별도로 진행중이다. 그것을 후원하는 조직들은 국가간의 다양한 식물위생요건을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국제해상수송화물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단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음과 같이 수행되고 있다.

1. 국제식물보호회의(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UN)
2. 북미식물보호기구(North American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NAPPO)
3. 미국 농무부 - 동식물검사국(USDA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어느 국가도 매년 수많은 증명서들로 인한 논란을 원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식물위생전문가들은 항상 "서류가 필요없는" 증명시스템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무서류시스템이 가동된다면 파렛트 등은 여하튼간에 위생요건을 준수하고 있다 사실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파렛트제작자들은 그들이 제작하는 파렛트에 한가지 마크를 찍는 요청을 받으며 그러한 마크시스템은 제 3자 혹은 국가의 감독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단속자들은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반면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충족되기 이전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의 개발과 수행계획은 EU가 200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미칠 긴급위생요건을 발표함으로써 가속화되어 왔다.

NWPCA(미국 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세계경제에서 상품의 이동을 촉진하며 또한 상품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증명체계의 개발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NWPCA는 세계 22개국의 600여 회원들과 함께 그 표준작업의 결과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결정적인 난제는 제 3자 지정(독립기구)으로 입증 가능한 제품부재의 조립과 제품인식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증명서식 즉,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동일표준의 수입요건이 필요하다. 실행이 가능한 증명서/표기체계를 위해서는 미가공 목재파렛트 등 포

장재의 공급망에 있어 다음의 요소들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NWPCA는 믿고 있다 :

- ◎ 제재소/목재건조(법) : 적절한 목재건조마크를 지닌 수종(樹種)과 가공처리 형식을 한 목재를 공급할 것. Grading agencies와 USDA-APHIS(미국농무부 동식물검역국)는 현재의 “KD”시스템(가마건조법)위에 추진되는 “열처리”에 대한 정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 ◎ 목재/파렛트부재 공급자: 적절한 목재건조마크를 지닌 수종(樹種)과 가공처리 형식을 한 목재를 공급할 것. 만약 목재의 품질등급표기가 광범위하게 행하여진다면, 그리고 단지 실질적으로 단지 소량의 목재만이 EU행 포장재로 쓰이게 된다면 많은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여분의 목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 ◎ 포장재 증명 : 이것은 조립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기 위하여 동일표준의 서류수와 횡수를 줄여준다. 국제적으로 제정된, 그리고 인식된 SWPM(미가공 목재포장재)표기는 입증을 위하여 SWPM에 영구적으로 부착될 것이다.

- 1 제작시설
- 2 조립일
- 3 원산지
- 4 수종(樹種)과 목재건조를 밝혀주는 증서 및 코드번호

규격의 도안과 위치에 대해서는 파렛트표기 표준이 이미 ASTM(미국재료시험학회)표준 D6253으로 규정되어 있다. 식물위생요건이 지역적으로 일치되고 최종적으로 세계의 식물위생요건이 제안됨으로써, 인식작업은 크게 단순화될 것이다.

EU의 긴급규정의 경우에 파렛트 등은 가공처리된 침엽수인지 아닌지 표기될 필요가 있다. 2000. 12. 31일 이후에 미국을 떠나 EU의 항만부두에 도착하는 포장재들은 그것의 원산지, 수종과 가공처리 등에 관하여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

- ◎ 수종(樹種), 가공과 조립에 대한 제 3자 검증 : 이것은 적당한 수종이 이용되고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파렛트조립시설에 대한 연 4회에 걸친 비공표 검사를 통하여 수행될 것이다.

이 검증작업은 검사를 받는 시간내에있는 등급을 인정받은 열처리 혹은 가마건조된 목재를 구입하는 것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구매기록과 목재건조 표기가 찍힌 정의를 신뢰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마크가 찍힌 목재포장재의 함수율을 무작위검사함으로써 적절히 가공처리된 목재가 이용되고 있다는 믿음이 증가할 것이다.

- ◎ 포장재사용자/화물운송업자 : 포장재사용자들은 “국내용”과 “세계용”의 포장재를 분류하기 위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그들의 창고보관요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명확한 인식마크가 매우 중요하다.

- ◎ 매년 정기적인 USDA-APHIS의 검사 : USDA-APHIS직원은 적어도 일년에 한 번 목재검사/품질등급 감독회사의 검사기록이 필요할 것이다.